

GRACE 선교소식

2026년 4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는 「신 천로역정」 뮤지컬 공연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됩니다. 이번 작품은 김현철 담당 목사의 총감독 아래, 문화사역국장 장순범 피택장로님과 많은 스텝,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열매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천로역정」은 영어로 The Pilgrim's Progress, 곧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저자인 존 번연은 1600년대 영국의 침례교 전도자로, 가난한 뿔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

포되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깊이 묵상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가 된 「천로역정」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로역정」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와 같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이 깊은 내용을 한눈에 묵상할 수 있도록 잘 담아내었기에, 더욱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MEGL 16기: 4/13-4/16
- 스웨덴 은혜교회 집회: 4/19-4/21
- 목사 부흥의 밤: 4/28
- 성도양육과정 개강: 4/29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행되는 MEGL 16기를 위해 출발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사역이오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국

한OO / 김OO 선교사

호산나 교회

사역자는 매주 2회 마을을 돌며 전도를 합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의 집을 방문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청년 몇 명이 사역자를 도와 일꾼이 되나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하차하였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찾아 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선 헌신된 자 5명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협력교회인 하비스트에는 목회자와 생사교락을 할 수 있는 헌신된 자 8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그들이 이끌어 나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비스트에서도 불교도가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다만 목회자 혼자만 아닌 함께 꿈을 꾸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호산나와 다른 점입니다. 현재 헌신된 자 2명이 있지만 3명이 더 채워져서 호산나도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비스트 교회

3월 27일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모두 22명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 소문이 나 날로 번

창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에 뜻이 있는 담임목사는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안마는 2~3층짜리 소규모 건물에서도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으며 개신교 학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남여 그룹홈 사역

3월부터 5월까지 아이들은 방학입니다. 이 때에 시간 활용이 문제인데 기초를 쌓기 위하여 학원에도 보내고 한글 공부도 시킵니다.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교실도 보내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끔씩 가는 수영장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자에 3명이 대입 시험을 봅니다. 학원을 오가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그룹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의 수고가 내년에 첫 결과로 나타납니다. 현재 한글 학교는 소수이지만 중급과 고급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국

유00 / 킨00 선교사

이런사태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경제기반이 약한 M국은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에 기름은 하루에 원화 2만원 가량만 주고 있고, 그마저도 2~3시간을 주유소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케레이그와의 만남

거케레이그는 Y지역에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의 교육기관에서 잘 먹고 공부 열심히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Y지역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Y지역에 갈 일이 생겨 거케레이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함께 지냈던 예수마을사람들도 거케레이그를 보고 싶어 하고, 잘 자라기를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예수마을에 새로운 피난민 가정이 합류하였습니다. 내전으로 남편을 잃고 네 아이와 산속으로 피신해서 지내다가 예수마을의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저쪽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자아이(17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이 가능한 도시로 이동을 하였고, 마을에는 엄마와 세 자녀만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을 할 수 없어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잘랐다고 하네요. 냄비 하나없이 탈출하여 살림살이 몇 가지와 약간의 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안정을 위한 돼지사육

예수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피난민들은 먹고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일 때는 빈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지만 농한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다른 집의 낱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다행히 여러 후원자님들 덕분에 이번에 돼지우리를 짓고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력무력 잘 자라서 예수마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어학원 오픈 예배

3월 13일에 한국어학원 오픈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몇 분 모시고, 한국어 교육을 받을 청년스텝들과 함께 은혜 중에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국어학원을 통해 스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보다 넓은 삶의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피난민사역에서 아쉬운 MOJ 청년스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촉점과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경번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사론을 강의했습니다. 통사론은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문장이 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다루는 분야로, 성경 번역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여러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했고, 복습과 질문을 통해 강의내용이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석사 과정의 수준까지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성경번역 선교사들은 미국 SIL과 협력기관인 캐나다 CANIL, 태국 파얏대학교 등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지만, 문장에 관한 통사론은 문법 과목의 일부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번역 현장에서는 문장이 옳

은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현지인 조력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력자들의 표현이 일관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는 문장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통사적인 이유로 구조가 변형되거나 강조나 문체에 따라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조 규칙과 구성성분 테스트, 수형도 그리기와 같은 기초적인 분석 방법부터 결속 이론, 의미역 이론, X-bar 이론, 핵어 이동, Wh-이동, 문체 이동 등 보다 심화된 내용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각 언어의 문장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번역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실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으로 314페이지 분량의 교재와 901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줌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선교 현장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강의가 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참석하기 어려웠을 텐데, 선교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

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강의 녹음과 교재와 PPT 자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듣고 배우며 사역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위해 이 과정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시작 약 열흘 전부터 김운용 선교사는 어깨와 등, 허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통증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강의를 마치자 모든 통증과 증상이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는 길을 방해했지만, 이번에도 주님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동역자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사론 강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기대합니다.

또 감사한 소식은 남영미 선교사의 난소암 정기검사가 3개월 간격에서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국

제00 / 박00선교사

L국 소식

캄보디아사건으로 인해 한국 분들의 관광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까운 태국 국경을 지나는 것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3월 중순부터 다시금 예전처럼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많이 더워지고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L국은 4월이 제일 많이 더운 날씨이고 L국 사람들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해 기간에는 큰 물축제도 있고 휴가기간이 있어 이때 선교사들은 이 휴가기간에 선교사들만의 수련회로 쉼과 누림,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귀한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방비엥파타오몽족교회

연말에 모아놓고 전달하지 못한 물품들과 간식들을 잔뜩 싣고 2시간 차로 달려 도착하여 방비엥파타오몽족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타오전도사님이 경운기를 끌고 나오시는데 도착한 날 도로공사를 해서 경운기를 한참 먼곳에 세워 모든 짐을 짐 때 학교에서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과 같이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니 어느새 많은 짐들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다모인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빵과 우유로 고마움을 보답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예배 후 식사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준비된 부엌과 그릇들을 보고 돌아오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건 한번 시작하면 매주 이 일들을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어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개발사업(CDP)

아동결연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교육, 의료, 정서발달, 가족생계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이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달생계, 교육, 건강, 의료 등으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물질로 지원하고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L국은 공산국가이기에 제한적인 사역이지만 소수인원 약 19명 아이들에게 2024년부터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스쿨을 하는 폰시누완 학교를 토대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하여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한달에 한번씩 만남을 가질 수있고 가정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좋습니다. 소중한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부족하지만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소소한 선물과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로 후원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형편은 어렵고 부모들에게 버려지거나 이혼가정에서 어렵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잘 성장하여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길 소망해 봅니다.

Women's Union Traning Center

3번째 방문하여 잠깐의 나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강간, 미혼모 등이 모여 지내는 곳이고, 아픔을 치료받기도 하고, 또 폭력과 가정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미혼모에게는 아기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도그렇지만 라오스도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머물고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아 본국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물품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쉬는 동안 맛있는 한국음식도 접해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관을 돕고 싶고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여성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 뿐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주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본국 일터교회 & 장학사업

10살 무렵 처음 우리 집에 같이 살려왔던 꾸끼는 한국 말을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아가씨가 되었고, 오빠 똥은 신학을 준비하고, 18살에 시골에서 올라와 제빵기술을 배운 뽀은 결혼해서 이번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배도 나오고 입덧도 하는걸 보고 있자니 친정엄마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다는 본국에 와



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13명의 staff들이 열심이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남을 돕고 있습니다.

성실한 직원들과 함께 만든 수익금은 시골 목회자 자녀 약 100명에게 대학교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이 사역이 가능했을까?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이 직원들을 위해서 더 잘 성장하고 이 나라의 크리스찬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콩교회사택건축

오랫동안 같이 사역해 온 나콩교회 건축이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일하는 목사님 아들 똥이 2시30분에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달려 집에 도착해서 건축일을 혼자 감당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달려와 매장에서 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가족들이 예배당에서 지냅니다.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어질텐데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공사가 끝나고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캄사이 몽족교회 건축

작은 몽족 마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뒤에는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배당 공간이 부족함을 저희도 예배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와 어른들이 나눠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다양한 모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워낙 시골이다보니 자재 조달도 어렵고 건축비용이 수도보다 몇 배나 비싸 비용적인 부분도 예상한 비용보다 늘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르메니아

백승환 / 올가 선교사

이란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이란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아르메니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숫자는 없지만 현재 예레반 도심을 걸어 다니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란인들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과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3주동안 매일 저녁 시내 중심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성경책을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7

주일에는 **International Bible Church of Armenia (IBCA)**로 전도자들을 초청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있는데 매주 평균 10여 명의 이란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4월 21일부터 열리는 아라랏 프레스 디아스에는 이란인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 10명의 이란인을 초청했습니다.

예레미아서의 예언성취

예레미아서 49장35-39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아서에 기록된 엘람(이란)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란을 진멸하신 후... 끝날에 이르러는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이란의 영적회복, 즉 이슬람 집권아래 47년간 눌려있던 이란이 이번 전쟁과 정권 교환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아르메니아로 144,000권의 페르시아 성경책을 이미 지난 2년 전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란 국경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P국

정OO / 화OO 선교사

학교 사역 소식

2월과 3월에 걸쳐 여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적 시상식이 학부모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미션 센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미라클씨드학교와 독수리학교에는 8학년 졸업과 함께 올해 9·10·11·12학년 정부 시험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약 20여명이나 됩니다. 100% 문맹이었던 벽돌 공장지대에 15년 전에 세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10학년 이상이 되면 회사와 공장 등 사회로 나아가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합니다.

교회 소식

두 센터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15년 전 설립 초기부터 그렇게 부르짖고 강조해 왔던 십일조 생활이 이제 일부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생활화되어, 금액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 나라 선교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전도·선교 소식

3월 첫 주 금요일에 신학교가 개강하여, 40여 명의 고학년 사역자들이 학생으로 등록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6명의 강사가 초대교회사, 영적 전쟁, 기도와 제자도, 성령론, 영어 회화와 문법을 PPT 자료로 제작해 영상을 활용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 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3월에는 사역자 3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이곳에서 1,200km여 떨어진 신드주 미전도 지역을 방문해, 현지에서 세워진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와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먼 거리로 인해 비용과 헌신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2022년 홍수 당시 개발해 놓은 25개 태양광 우물 설치 지역마다 사역자가 세워지고, 전도와 예배,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선교사들과의 동역 소식

이곳 사역은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어, 약 7년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지만 마땅한 사역지를 찾지 못했던 타 기관 한인 파송 선교사 가정들에게 사역지를 분담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재 3가정이 동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 들



어울 가정들과 다른 가정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총 5가정 이상이 함께 동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미 개척된 사역지들을 여러 가정이 힘을 모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슬림 가정교회 사역 및 직장 선교

정부 학교 교사로 11년간 근무 중인 제자 사역자 무스타의 가정에는 매일 무슬림 가정, 2-3가정이 가정 문제, 질병, 영적 치유를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웃과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정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제 120가정이 넘었습니다.

유월절 넘어 부활절

<1분단상 151-4월호>
- 김대규 장로

유월절과 부활절, 두 절기는 구속사에서 매우 깊이 연결된 절기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절의 예표인 것이다. 유월절(히: פסח, 영: Pesach)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즈만 헤루테누’(자유 의 때)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출애굽 전날 밤(니산월 14일 저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구원받게 한 것이었다.

‘피로 구별된 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구원의 상징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같은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구속사로 유월절의 의미와 닿고 있다. 유월절은 단순한 출애굽사건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이었다.

부활절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또 하나의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더 정확히 말해 십자가는 ‘유월절의 성취(fulfillment)’인 것이다.

유월절 다음날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된다. 이는 유월절을 지킨 후, 급히 애굽을 떠나게 되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은 이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다(출12장). 한결음 더 나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교절은 과거 노예생활과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구원 받은 후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무교절이 진행되는 동안 초실절이 온다.

초실절은 하나님께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니산월16일)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자도 초실절 날과 동일하다. 성경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라고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었다.

구속사 사건으로 볼 때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표이며, 무교절은 구별된 삶을 뜻하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케 될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흐름이다. 실제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고전5:7)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되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부활절은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다. 이에 앞서 예수님이 가지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위한 만찬이자 주님의 십자가를 대비한 성찬으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8). 새 언약이 선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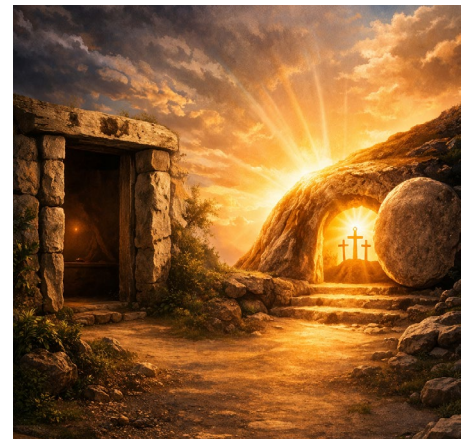
새 언약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성령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기초이다. 새 언약이 사람 안에서 작동할 때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새 계명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는 새 언약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새 언약이 성령으로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 계명은 그 바뀐 내면을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나라는 그 새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통치의 영역을 말한다. 하나님나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와 완성될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는 유월절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엄청난 긴 세월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그 심정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새 계명 아래 있다.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피가 생동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 피가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란 점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사랑과 섬김으로 주를 닮아가야 한다. 주의 보혈이 모든 관계와 걸음을 새롭게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새 언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어야 한다. 현재는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지 않는 영원한 미래가 있다. 이 미래에 우리는 살고 있어야 한다.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성 삼위 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다가올 새 예루살렘성의 입성을 준비하는 미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닌 약속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C국 조OO / 윤OO 선교사

1. 한국문화체험관(BAM) 이 만남과 변화의 장이 되도록
2. BAM 사업이 세심한 도우심 가운데 속히 안정되도록
3. 비자문제로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4. 부부가 지지치 않고 평강과 감사로 잘 감당하도록
5. 6월 입대를 앞둔 큰 아들과 군 복무중인 둘째를 위해서



아르메니아 백승환 / 올가 선교사

1. 이란에 정권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 이란국경에 세워진 아가락 선교센터가 이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를 통해 더 많은 이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4. 아르메니아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이란과 터키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5.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 아르메니아위에 함께 하도록
6. 4월 21-24일 열리는 아라랏 뜨레스 디아스 제19기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7. 선교사의 가정과 특별히 노모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V국 강OO 선교사

1. 8월 6일 H도시에서 야고보서 1-5장 암송대회가 열립니다. 암송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영혼들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2. 동남아 성경 암송대회를 주관하고 후원하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7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암송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3. 영어 암송대회도 따로 준비중입니다. 암송대회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고등부 여학생만) TD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4. 삶에서 아케다(결박)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늦게 주신 아들이 사랑스럽지만 아들이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갈대 상자에 태워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I국 남OO 선교사

1. 더위가 시작되었지만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일교차가 심해 학생들과 저희들이 건강하게 지내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2. 더이상 사역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 3명의 자매들이 신앙을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3. 강의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예수사랑으로 충만하도록
4. 앞으로의 인도와 세계 선교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새롭게 도약하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5. 현지교회와 현지인이 세계선교의 동반자가 되어 자립 자치 자전이 이루어진 I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L국 제OO / 박OO 선교사

1. L국 곳곳 모든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속히 전하여지길
2. 래OO와 로OO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가길
3. 제OO 선교사 허리 통증이 호전될 수 있도록, 박OO 선교사의 팔의 통증을 위해
4. 본족(일터교회) 사역장의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일해야하는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5. 나궁 교회 목사님의 두 다리가 많이 아프시고 등, 팔에 있는 뼈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길
6. 4월에 있을 L국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의 회복과 영적 재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1. 하나님 마음을 품은 현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2.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3.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4. 여성 모임을 통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성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5. 인카운터 & TD를 통해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내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6. 한국 방문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7. 라농 지역에 복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도록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1. 각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통사론 강의를 통해 언어구조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되도록
2. 번역된 성경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3. 언어학회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나눔이 복음의 실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해 주시도록
4.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 체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5. 남영미 선교사의 난소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자가면역질환을 치유해 주시고 정상체온으로 유지시켜 주셔서, 중단 없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6.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믿음과 성품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장래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도록

M국 유OO / 킨OO 선교사

1. 예수마을의 피난민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지내도록
2. 새로운 사역(한국어교육)을 통해 좋은 청년스텝을 만나도록
3. 새로운 가정이 예수마을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4. 유OO, 킨OO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배선교사님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M국 한OO / 김OO 선교사

1. 영육간에 강건함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한글학원에 수강생들을 보내주소서
5.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소서
6.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서금순 선교사

4년 전부터 발바닥 감각에 이상이 있었는데 3월중에 한국에 가서서 척추 전문병원 3곳을 다니며 MRI 찍은 결과 척추협착증(3,4,5번)이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현재 통증은 없는 이유는 마비 증상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넘 비싸서 엄두도 안나고 수술 자체가 걱정스러워 고민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방 등 치료를 좀 받으신 후에 4월 말이나 5월 초 쯤에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P국 정OO / 화OO 선교사

1. 이 나라 수도에서 열릴 중동 평화 협정이 잘 이루어져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2. 정부 시험을 치르는 9·10·11·12학년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도록
3. 무슬림 가정교회 순회 사역을 위한 7-8인승 차량이 속히 마련되도록
4. 신학교 강사와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며 영성이 배가되도록
5. 매년 5월과 11월에 열리는 국내외 무슬림 지도자 대규모 iJEMAT집회(100만-300만 명) 기간에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튀르키예 MEGL 16기
 - 포르투갈 인카운터 1기
-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포르투갈 인카운터 1기 (4/16-4/19)
S/L: 안영식 목사
문의: 김수영 집사 (213-466-9514)
- Armenia ARTD #19 (4/19-4/28)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임경무 집사
총무: 성재승 집사 (213-255-8155)
- 파라과이 상담국 선교 (4/21-4/24)
S/L: 김영호, 김정원 목사
렉터: 김준규 장로 (714-336-8320)

• 알래스카 인카운터 3기 (4/21-4/28)

S/L: 송중호 목사
디렉터: 전재우 집사
문의: 어에녹 집사 (714-313-5544)

•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1기 & 개척선교 (4/23-5/3)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동유럽 Romania Local Church G/E & VBS (6/2-6/9)

디렉터: 권혁석 장로
팀장: Steve 어 안수집사 (714-318-8549)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T/M: 4/16(목), 7PM 웨딩채플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